

집채만한 이삿짐 싣고 달리는 픽업트럭

집채만 한 이삿짐을 싣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는 픽업트럭 한 대가 멕시코 운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사진=유튜브(What's on Web) 캡처

멕시코 일간 '엘 유니베르살'은 최근 마라 파딜라라는 현지 여성이 지난 1월 목격당한 이사 모습을 전했다. 그녀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삿짐을 잔뜩 싣은 흰색 픽업트럭이 도로 위를 서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실린 이삿짐은 종류도 다양했다. 거울과 가스통, 소파와 휠체어, 식탁, 옷장, 서랍장은 물론 침대와 매트리스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 형태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안전 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엘 유니베르살은 "그 많은 이삿짐을 싣은 것도 놀

랍지만, 가구 등 각종 화물의 낙하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점은 더욱 놀랍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이삿짐을 싣으면서 안정성도 높이는 방법으로 적재함에 나무판을 배치했지만, 그리 안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삿짐을 바줄로 고정하고 덮개를 씌우긴 했으나 그 덮개가 화물 전면부만 덮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우려했다.

적재중량을 지켰는지도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포드 F150 모델로 추정되는 영상 속 픽업트럭의 적재중량은 모델에 따라 800~1,400kg 정도다.

이 영상 시청자들은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다.", "테트리스 게임으로 다진 조립 능력을 이렇게 활용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추적 피하려 성전환한 남성, 결국 감옥행



▲ 사진=유튜브(Báo Tuổi Trẻ) 캡처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전환 수술을 한 범죄자가 14년 만에 체포됐다.

지난 6일 베트남 하이퐁시 경찰은 불법 마약 유통 혐의로 부이 반 린(50)을 체포했다.

2007년 경찰은 린 씨를 포함한 마약 판매 일당의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마약을 유

통한 일당 가운데 린 씨를 제외한 다른 범인들은 모두 체포됐다.

이후 린 씨는 2012년 아내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하여 정신병이 있으니 병원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린 씨는 병원을 탈출해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계속해서 그를 추적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사이 린 씨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살아갔다. 이름도 여성의 이름으로 바꾸었고 생년월일도 바꿨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지난 3월 31일 고향에 들른 린 씨를 결국 그를 체포해 신분 세탁 행적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린 씨는 성전환 수술까지 감행하며 범망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CF 모델된 11살 의족 치어리더



▲ 의족 치어리더 애덤스. 사진=나우뉴스

11살 의족 치어리더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미켄지 애덤스(11)는 한 살 때 경골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부재를 초래하는 희소병으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모두 잘라내고 생후 16개월부터 의족을 착용했다.

애덤스는 4살 때부터 치어리딩을 시작했다. 애덤스가 즐겨하는 스텐트 치어리딩은 텀블링, 인간 피라미드, 점프 등으로 개인 기술과 민첩함이 요구된다.

의족을 싣고 텀블링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애덤스의 할머니 메리 애덤스 시오스(62)는 "손녀의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의족을 벗는 걸 보고서야 다리가 없다는 걸 안친 구들도 있었다."면서 "흠금흠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손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전했다.

애덤스는 지난해 나이키 광고 캠페인 '우리를 막을 순 없다' (You can't stop us)에 출연했다. 광고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미국프로농구(NBA) 2019-2020시즌이 재개된 지난해 7월 31일에 맞춰 공개됐다.

90초 분량의 광고 초반에 등장한 애덤스는 "우리는 시련 앞에서 더 멀리 나아갈 것"이라는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사이 드넓은 모래사장 위에서 거침없는 텀블링을 선보였다.

애덤스의 최종 목표는 2028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에 진출해 미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다. 애덤스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고 싶기도 한데, 일단 패럴림픽 치어리더에 합류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확실하게 다른 치료요법과 탁월한 효과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 위장병
- 각종 통증
- 우울증
- 불면증
- 알러지, 피부병
- 공황장애
- 비만, 불임
- 오십견
- 목,허리디스크
- 중풍 후유증
- 소아 자폐증
- 파킨슨병, 치매



얼바인에서 제일 크고 쾌적한 한의원 훌륭한 치료, 저렴한 가격 정확한 진맥과 훌륭한 처방

난치병을 잘 치료하기로 소문난 얼바인

북경 차한의원

Dr. 차계향 Ph. D., L.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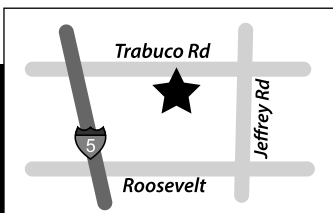
- 중국중의과학원 의학박사 (중의내과)
- 북경중의약대학 의학석사 (침구추나)
- 요녕중의약대학 의학학사 (중의과)
- 세계 최고권위 중의 명문대학에서 중국 MD 및 중의사 자격증 취득
- 신경내과, 소화기내과 및 임상침구학 전공
- "만성위염의 중의 임상치료 가이드"편찬 참여
- 중국 최고권위 중서의 종합병원 서원병원 동적문병원 등 대학대학병원임상 13년, 전체 임상경력 23년
- 1급 양생기공사 자격, 기공수련 30여년
- 미국내 중의대 교수

기 침(氣針)

에너지 경락 추나 마사지

기공진복(氣功振腹)

태극 불 부항, 옥 경락 팔사



www.acupuncturecha.com

北京中和國醫堂

PPO 보험 취급

949.426.9070 / 626.899.5166 5400 Trabuco Rd. Suite 130, Irvine, CA 92620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가능